

'체감경기 기지개' 지역경제 훈풍부나

경기전망 5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건설 비수기 종료·사업추진 등 영향 1월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72.1%

건설 비수기 종료와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5개월만에 상승세로 반등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석)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217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17년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는 88.7로 나타났다. 이는 1월 전망(75.6)보다 대

비 13.1p 상승한 반면 전국(90.0)보다는 1.3p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90.7, 전남 85.0으로 전월대비 각각 12.7p, 14.1p 상승했다.

SBHI는 경기를 전망한 업체의 응답 내용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보다 높으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건설업 비수기 종료, 본격적인 사

업추진 시기 등이 맞물려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업황 전망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오히려 반등했다. 업계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내수소비와 자금사정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14.1p 상승한 87.8, 비제조업도 전월대비 12.0p 상승한 89.4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4.6→88.4), 수출(87.0→95.2), 경상이익(74.4→85.2), 자금사정(71.9→79.9)은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가 상승했다. 반면 고용수준 전망은 95.8에서 93.7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의 최대 경영여로는 내수부진(66.3%), 인건비

상승(52.8%), 업체간 과당경쟁(36.7%), 인력확보난(26.1%), 원자재값 상승(23.6%) 순이었다.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의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2.5%p 하락한 71.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전월 대비 2.7%p 하락한 72.2%, 전남은 전월 대비 1.9%p 하락한 69.6%로 조사됐다.

조동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4개월 연속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지역 건설업 비수기 종료, 지자체 등의 본격적인 사업 시작이 겹치며 지역 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 사드보복 등 지역 해외수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지역 음악산업 '메카' 우뚝

광주진흥원, 3년 연속 음악창작소 선정

광주정보산업문화진흥원(원장 이정현)은 광주음악창작소(이하 음악센터)가 3년 연속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음악센터는 올해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국비 포함 11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작지원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음악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음악센터는 3월 중순 다양한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와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9월2~3일 사적공원에서 펼쳐지는 국제 음악축제 '광주사운드페스티벌'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뮤지션 인큐베이팅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신진 뮤지션들을 발굴해 교육, 공연, 음반 등 체계적인 사후 지원을 실시한다.

2015년 통상을 받은 '아니', 2016년 대상 '빛과소음' 등은 베이비뮤직

'이주의 발견'에 선정됐다. 2016년 금상을 수상한 밴드 '다이얼라잇'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영국 리버풀사운드 시티에 초청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다양한 제작지원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29개(190개 음원)의 음반을 제작하고 57회공연을 실시했다.

사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최초로 유료공연으로 열린 '광주사운드페스티벌'은 예매 티켓이 매진되는 등 성공리에 펼쳐져 지역 축제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음악창작소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어 안정적인 지원 환경이 마련됐다"며 "사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 등 관련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음악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한 사적공영, 음반 등 체계적인 사후 지원을 실시한다."

2015년 통상을 받은 '아니', 2016년 대상 '빛과소음' 등은 베이비뮤직

/황애란 기자



"대만 락 카스테라 맛보세요"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는 대만여행에서 접했던 맛 그대로 대만 락 카스테라가 입점돼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일자리 창출 국비 19억원 확보

전남진흥원, ICT 전문인력 육성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장렬)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개 사업에서 국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진흥원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전남도를 비롯해 나주, 목포, 해남, 고흥 등과 협력, 도내 ICT와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도정 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3개 사업은 ▲디지털콘텐츠 청년 창작자 양성 ▲해양관광서비스 청년 창업 ▲드론산업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오장렬 전남진흥원장은 "지역 콘텐츠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특화된 ICT·콘텐츠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해빙기 안전예방 철저히 점검'

농어촌공사, 전국 공사사무소장 워크숍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나주 본사에서 공사사무소장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7 전국 공사사무소장 워크숍'을 1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우수 시공 사례를 발표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와 청렴 특강을 통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공사 감독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정승 사장은 "농어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공사의 품질을 더욱 높이는 한편 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일선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특히 해빙기를 맞아 시설물 안전점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전국 1,5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농촌옹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 시설개보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기에 대비하여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중소기업 원스톱지원센터 확장 이전

오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1층 개소...2년간 8,163건 상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확장 이전한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오는 2일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중식 광주시 경제부시장, 중소기업지원기관 대표 14명이 참여

해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공동참여 협약을 맺는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1층에 33㎡ 규모로 설립, 전남인력 4명이 근무한다.

지원내용은 자금·창업, 수출·판로,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애로 등으로 장구 직 접처리, 전화상담·안내 및 해결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2월 문을 연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 창업, 수출·판로, 일자리, 소상공인 및 기업애로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163건을 상담, 애로해소 등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원스톱지원센터는 경제고용

진흥원 건물 안에서 창업, 자금, 일자리, 판로개척 등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집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고용진흥원 건물에 입주, 원스톱 지원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광주신보, 중진공 광주본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서부센터 등이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은 "지원기관의 집적화와 체계화를 기반으로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지원정책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육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이경섭 농협은행장 '호남 현장경영'

기본정신 강조...농업·공공금융 집중

이경섭 농협은행장이 광주에서 2017년 현장경영 활동을 마쳤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NH농협은행 이경섭 은행장이 최근 광주 영암본부를 방문해 호남지역 사무소장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영방향에 대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경섭 은행장의 현장경영은 지난달 9

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농협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소통해왔다.

이 행장은 특강에서 "올해 경영전략으로 기본으로 돌아가 농협 정신을 가슴에 되새겨야 한다"며 "농협은행의 감정이 소매금융과 농업금융, 공공금융에 집중해 기초체력을 다지자"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SALE

가구도매물류 **싼값 가구전시장**

장농·휴·돌침대·소파·식탁·거실장·원목가구

HYUNDAI 현대리바트 **LIVART** 사무용·주방가구·불박이장

GSB 금실방 062) 525-2630
2,000평 광주임동성당위 **신문보고 전화 주신분 10%할인 해드립니다!!**

NAVER **광주금실방** 검색